

군산항·새만금신항만 개발 탄력

부안 상왕등도항 등 전북 3개 항만 해수부 육성정책에 포함 국비 확보·항만사업 추진 가속도...기반시설 개발계획 수립

군산항과 상왕등도항이 국내 주요 항만의 중장기 육성 방향을 결정하는 해수부 항만정책 추진전략에 포함됐다.

또 새만금신항만도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전북지역 주요 항만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18일 군산시와 전북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마련한 '2030 항만정책 방향 및 추진전략'에 군산항과 부안 상왕등도항, 새만금신항만이 포함됐다.

군산항은 최대 현안인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금란도 개발이 반영됐으며, 저수심 구간 해소를 위해 항 입구 및 1~3부두 준설 계획이 포함돼 안정적 선박 입출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남시어선 및 레저 선박 등의 증가로 부족한 군산 비유항의 접안시설이 확장되고, 군산내항 침수 방지시설도 확충된다.

이에 따라 군산항이 배후산업 및 해양레저 지원항만으로 육성된다.

2012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됐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개발이 더딘 부안 상왕등도항의 부두와 선착장 등 기반시설 개발계획이 수립된다.

지난해 기본계획이 확정된 새만금 신항만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정식 지정돼 국비 확보 및 항만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운동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에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항은 정부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고시될 계획"이라며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행정절차 이행, 국가예산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 투시도.

제일건설,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 분양

8개동 449가구 오늘 견본주택 오픈...KTX역·이마트 등 인프라 최적

제일건설이 남원지역에 처음으로 공동주택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를 공급한다. 제일건설은 19일 남원시 왕정동 150-1에 마련한 견본주택의 문을 열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와 고객 안전을 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이 단지는 제일건설이 남원에 처음 선보이는 것으로 '오투그란데'만의 특별한 건설 노하우를 적용한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 수요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신정동 116-3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는 지하 2층~지상 15층, 8개 동, 전용면적 59~138㎡, 총 449세대로 구성된다. 면적별로는 ▲59㎡ 59가구 ▲84㎡A 259가구 ▲84㎡B 54가구 ▲119㎡ 73가구 ▲138㎡ 4가구다.

가장 많은 259가구로 구성되는 84㎡ A타입은 4 Bay 판상형 구조로 우수한 개방감 및 통풍을 자랑한다.

남원 최초로 선보이는 주방 옆 혁신공간은 대형

세탁실과 보조주방을 하나로 사용할 수 있어 주방, 보조주방(옵션), 복도가 순환되는 동선으로 수납공간을 극대화한 설계를 선보인다.

아 아파트는 남원에서 보기 힘들었던 차별화된 커뮤니티를 선보인다.

조깅트랙을 포함한 단지 내 멀티 피트니스센터가 조성되고 실내 골프연습장도 갖췄다. 실내 키즈 플레이존에서는 날씨와 관계없이 자녀와 안심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다. 단지내 셀프 세탁공간과 주차장셀프 크린존도 생긴다.

남원 오투그란데 퍼스트시티는 통학서비스도 제공한다. 제일건설이 전북교육청에 기증한 45인승 통학버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마음 편한 자녀들의 통학이 가능하다.

편리한 인프라도 갖췄다. KTX남원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인근 도시 및 광역으로의 접근이 쉽고, 이마트도 있어 편리한 쇼핑이 가능하다. 또 광치천·복음산 등의 녹지공간도 갖춰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고대산성 '아막성'서 신라 대형 집수시설 발굴

고고학적 의미 큰 유물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추진

남원시 운봉고원의 고대 산성인 아막성에서 신라시대 대형 집수시설이 발굴됐다.

남원시는 "운봉고원에 있는 아영면 봉화산의 아막성에서 신라 시대 집수지와 도수로 등을 찾아냈다"고 18일 밝혔다.

집수지는 성에서 마실 물을 모아놓는 곳으로 길이 9.5m 너비 7.1m, 최대 깊이 2.5m 규모다.

도수로는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로, 집수지 주변에 폭 50cm 내외로 설치돼 있었다.

또 이들 집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주열(나무 기둥) 9기도 확인됐다.

집수지 등지에서는 6세기 중반~7세기 전반에 제작된 신라 토기와 목제 유물, 각종 동물의 뼈 등이 발견됐다.

남원시는 이들 유물이 신라를 대표하는 것이고, 신라가 아막성을 차지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 집수시설이 신라가 축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막성은 철 주산지인 남원 아영면의 운봉고원 봉화산에 축조된 삼국시대의 석축 산성으로, 신라와 백제가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던 곳이다.

삼국사기에 '백제 무왕 3년(602년)과 무왕 17년(616년)에 백제가 신라의 아막성을 공격했다'



남원 운봉고원의 옛 산성인 아막성에서 신라시대 대형 집수시설이 발굴됐다. <남원시 제공>

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번 발굴조사는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가 맡아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집수시설을 비롯한 이번 유물

들은 고고학적으로 의미가 큰 것"이라며 "추가로 발굴조사를 진행해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에 100억원 투입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고창군이 기업유치와 지역민의 건강 증진,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한다.<사진>

고창군은 지난 17일 고수면 고창일반산업단지 안쪽 부지에서 '복합문화체육센터' 기공식을 열었다.

복합문화체육센터에는 체육시설(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과 문화시설(작은도서관, 작은목욕탕), 산업단지 지원시설(일자리 지원센터), 유아시설(유아체육실,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선다.

고창군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1년 말 센터를 준공한다.

고창군은 제안된 설계를 바탕으로 고수면 지역 대표와 입주 예정기업 등에 설명하고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고창군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통해 기업유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민과 상생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경관·힐링 '산악자전거 코스' 만든다

6억원 투입 북면~산내면 52km에 특색있는 산림레포츠 조성

정읍시가 수려한 경관 속 자연과 함께하며 힐링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로 산악 자전거코스를 새로 조성한다.

정읍시는 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북면과 칠보면, 산내면 수령리 일원을 경유하는 52km 구간을 특색있는 산악자전거 코스로 조성한다고 18일 밝

보하는 한편 라이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시설도 갖춰진다.

정읍시는 코스 조성이 완료되면 대규모 산악자전거대회를 유치하는 등 지역 흥부와 경제 활성화 방안에 접목해 나갈 방침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최고의 라이딩 장소를 조성해 정읍시민은 물론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모든 이들에게 색다른 레포츠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